

군사적 질서에서 공동체적 조화로

유가 윤리의 도시 정체성 재구성

Reimagining Military Cities

: Confucian Ethics and the Shift from Control to Communal Harmony

정두호*

국문초록 이 논문은 군사문화 도시의 평화적 전환을 위해 유가 철학의 윤리적 가치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한다. 군사적 질서와 유가적 조화의 접점을 상호 보완적 관계로 이해하고, 군사문화 도시에서 유가 철학의 평화관은 군사적 통제와 위계질서의 강압적 특성을 완화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존중받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윤리적 기초를 제공한다.

유가 철학의 적용을 통해 군사적 유산의 재해석, 대동사회(大同社會)의 이념에 기반한 공공 공간의 조성, 윤리 교육을 통한 공동체 의식의 재생, 군사적 행사에서 평화 축제로의 전환, 그리고 대동사회로 가기 위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원리 적용 등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도시 공동체가 단순한 물리적 재생을 넘어 윤리적·문화적 재생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도시 정체성의 재구성과 공동체적 가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핵심어 군사문화 도시 전환, 유가 철학, 평화적 공존, 대동사회(大同社會), 화이부동(和而不同)

- 차례**
1. 서론
 2. 다양성을 포용한 평화: 유가 철학의 평화관
 3. 평화를 위한 개인과 공동체의 역할
 4. 유가 윤리의 적용: 도시 정체성의 평화적 전환
 5. 결론

을 형성했으나, 최근에는 문화적 재생과 함께 평화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강원도 원주¹는 1990년대 대표적인 군사문화 도시로, 한국전쟁 이후 제1야전군 사령부와 미군기지 캠프 롱(Camp Long)이 주둔하였으며, 이로 인해 군인 및 그 가족들을 위한 시설이 다수 건립되었다.² 현재는 '창의문화도시 원주'를 표방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문화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³

이러한 군사문화 도시에서 문화도시로의 전환에 대해

1. 서론

이 논문은 유가 철학의 평화의 관점에서 도시 군사문화의 윤리를 재구성하고 평화적 공존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한국전쟁 이후 군사시설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도시들은 군사문화를 기반으로 특정 정체성

1 강원도 원주는 조선시대 강원감영(江原監營)의 중심이자 향교가 존재하던 유림의 중심지 중 하나로서, 유가적 질서가 지역 공동체의 생활 윤리와 교육에 영향을 끼쳤다. 현대에도 시민 의식 속에는 이러한 윤리적 유산이 일부 잔존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 전환 과정에서 유가 윤리를 동원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이 된다.

2 유춘동 외, 『원주의 군사문화 연구』, 강원연구원, 2018, 12쪽.

3 정두호 외, 「원주의 군사문화 연구: 원주의 장소성, 문화적 가치를 중심으로」, 『철학·사상·문화』 35,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21, 436~437쪽.

여 정두호·김대범은 ‘지금의 원주가 형성되고 발전되기 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군사문화가 남아 있는 장소성이 군사도시의 소멸과 함께 장소성의 문화적 가치 또한 소멸되고 있으며, 이는 도시의 문화정체성 소멸로 볼 수 있다’⁴라고 지적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한 지역의 장소성의 상실 혹은 소멸과는 별개로, 군사문화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 즉, 강압적, 일원적 구조를 극복해야 할 필요 또한 있다. 이러한 군사문화의 부정적인 면에 대하여 김대범에 따르면, “당시 원주시 군인들을 위해 학교에서 직접 응원단을 만들어 응원에 참가했”으며, “학교 자체적으로 반공의식과 군 문화체험을 위해 야간행군을 실시하는 등 군사문화가 학교 전반에 걸쳐 퍼져”⁵있었다.

이처럼 위계에 의한 동원과 일방적인 사상의 주입, 강압적인 군사문화 체험 등은 획일화된 군사문화 도시의 부정적인 면모를 나타낸다. 따라서 유가 철학은 이러한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군사문화 도시에서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로의 전환에 있어서 윤리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유가 철학의 전쟁과 평화와 관련한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으나,⁶ 도시의 문화와 관련한 연구는 매우 적은 상황

4 위의 논문, 448~449쪽.

5 유춘동 외, 『원주의 군사문화 연구』, 강원연구원, 2018, 12쪽.

6 박미라, 「맹자 전쟁론에서 군주의 도덕성이 가지는 효용」, 『윤리교육연구』 64, 한국윤리교육학회, 2022; 「전쟁 딜레마로 살펴본 갈등 해결 노력으로서의 철학」, 『군사과학논집』 74, 공군사관학교, 2023; 박창희, 「중국의 유교적 전략문화: 공자-맹자 사상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63, 한국민족연구원, 2015; 서세영·이혜영, 「유가 철학에서 전쟁의 의미와 도덕적 지향: 순자(荀子)의 주벌론(誅伐論)을 중심으로」, 『제43회 한중인문학 국제학술대회』, 한중인문학회, 2018; 안외순, 「유교사상에 나타난 화해 개념과 전통」, 『동방학』 43,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20; 「전쟁과 평화에 대한 맹자의 인식」, 『동양고전연구』 46, 동양고전학회, 2012; 안우경, 「유학의 평화사상: 공자, 맹자, 주자의 인(仁) 개념을 중심으로」, 『인간과평화』 2(1), 평화나눔연구소, 2021; 윤대식, 「맹자의 전쟁과 반전쟁: 의전론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3(1), 한국국제정치학회, 2003; 윤지원·유성선, 「선진유가 전쟁관에 대한 소고: 공자와 맹자의 전쟁관을 중심으로」, 『제43회 한중인문학 국제학술대회』, 한중인문학회, 2018; 이상호, 「유교 평화론에 관한 연구」, 『윤리교육연구』 58, 한국윤리교육학회, 2020; 전병술, 「평화로 가는 길: 하국 정제두의 실심실학이 가야 할 길」, 『양명학』 48, 한국양명학회, 2017; 조남욱, 「孔孟의 國

이다. 다만 도시 관련 연구로 주제를 확장하면 본격적인 연구 또한 존재하는데, 김성실은 맹자(孟子)가 추구한 도시 공동체는 ‘공감’, ‘복지’, ‘평화’의 공동체이며, 사람이 자연 그대로의 선한 모습을 가지고 모여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말한다.⁷ 이는 사람의 선한 본성을 그대로 발현할 수 있는 도시 공동체가 이상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도시의 군사문화는 평화의 가치를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재구성을 위하여 유가 철학의 평화의 가치를 중심으로 군사문화 도시의 윤리를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도시 공동체의 평화적 공존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를 위하여 유가 철학의 평화관을 논하고, 개인과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도시 정체성의 평화적 전환은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2. 다양성을 포용한 평화: 유가 철학의 평화관

유가 철학에서 말하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 즉 소극적인 의미의 평화를 넘어서, 각 개인이 자신의 도덕적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 전체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평화는 정의롭고 윤리적인 질서가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구성원 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실현되는 적극적인 평화(positive peace) 개념에 해당한다. 유가의 이러한 평

『國際平和 理論』, 『유교사상연구』 45, 한국유교학회, 2011; 조은영, 「맹자(孟子)의 전쟁 개념 고찰」, 『동양철학연구』 114, 동양철학연구회, 2023; 「유가(儒家) 전쟁관(戰爭觀)에 관한 연구동향과 과제」, 『유교사상문화연구』 84,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2021; 「전쟁을 통해 본 적대와 환대: 맹자(孟子)의 의전(義戰)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116, 동양철학연구회, 2023.

7 김성실, 「도시인문학의 토대로서 맹자의 공동체 사상 연구: 인문학적 도시를 향한 맹자의 기획」, 『도시인문학연구』 7(1), 서울시립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5, 51~59쪽. 물론 맹자는 전쟁 자체를 부정하거나 배제하지 않으나 질서와 조화 즉, 인정(仁政)을 위해 부득이 요청된 전쟁을 인정한다. 조은영, 「전쟁을 통해 본 적대와 환대: 맹자(孟子)의 의전(義戰)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116, 동양철학연구회, 2023, 54~55쪽.

화 이념은 『예기』(禮記) 「예운」(禮運)편에 나타나는 대동사회(大同社會)의 이상을 통해 구체화되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모두가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공동체 전체의 안녕을 실현하는 이상적 사회를 지향한다. 이 대동사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큰 도(道)가 행해질 때는 천하가 공변된다. 현자가 선택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참여하며, 신의를 강론하고 화목을 닦는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 부모만 친애하지 않고 그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 않으며, 노인들이 삶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장정들이 쓰임이 있게 하며, 어린아이는 길러지는 것이 있도록 하고, 홀아버, 과부, 병든 자 모두 봉양을 받게 한다. 남자는 직분이 있고, 여자는 돌아갈 곳이 있다. 재화가 땅에 버려지는 것을 미워하지만 반드시 자기가 감추지 않는다. 힘이 그 몸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미워하지만 반드시 자기를 위하여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모략이 단혀 일어나지 않고, 도둑, 절도, 난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문을 잠그지 않으니, 이를 대동(大同)이라 한다.⁸

대동사회는 유가 철학이 지향하는 이상적 공동체로, 개인의 사적 이익을 넘어 공동의 선(善)을 추구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질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 사회에서는 노인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청장년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여 사회에 기여하며, 어린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각 구성원이 자기 위치에서 도덕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조화를 이룬다는 유가 윤리의 핵심 가치와 맞닿아 있다.

대동사회는 단순한 유토피아적 상상이 아니라, 현실사

8 『禮記』 「禮運」, “大道之行也, 天下爲公, 選賢與能, 講信, 修睦. 故人不獨親其親, 不獨子其子, 使老有所終, 壯有所用, 幼有所長, 矜寡孤獨廢疾者皆有所養. 男有分, 女有歸, 貨惡其棄於地也不必藏於己, 力惡其不出於身也, 不必爲己. 是故謀閉而興, 盜竊亂賊而不作, 故外戶而不閉, 是謂大同”.

회에서 다양성을 어떻게 수용하고 조화롭게 조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유가는 모든 구성원이 사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공공의 이익을 중심으로 행동하고, 정의롭고 질서 있는 관계망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것을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으로 본다. 이는 서로 다른 가치와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다원주의와는 달리, 도덕적 기준과 공동체 질서를 바탕으로 다양성을 조화롭게 통합하려는 유가적 공동체의 비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가의 공동체 이상은 특히 군사문화가 깊게 뿌리내린 도시의 정체성을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철학적 기반을 제공한다. 군사문화는 본질적으로 통제와 위계질서에 기반한 일원적 구조를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구조는 군사도시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도시 재생과 문화적 전환을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는, 이러한 군사적 질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윤리적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환의 과정에서 유가 철학의 평화관, 즉 조화(和)와 화합(合)의 윤리는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유가의 조화 윤리는 강압적이고 획일적인 군사문화 도시의 구조를 완화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상호 존중 속에 협력할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나아가, 군사문화 도시의 고유한 장소성을 보존하면서도 그 안에 내재한 배타성과 강제성을 윤리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곧 도시 정체성의 평화적 재구성과 공동체적 조화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있어 유가 철학이 갖는 실천적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유가 철학에서 이러한 대표적인 조화와 화합의 원리는 바로 화이부동(和而不同)이다. 공자(孔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지만 무리 짓지 않고, 소인은 무리 지으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⁹

화이부동(和而不同)은 조화를 이루되 차이를 지우지 않는 유가 철학의 핵심 원리로, 서로 다른 개인과 집단이 각자의 특성과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의 선을 향해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단순히 다양한 요소들이 공존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기준과 공동체 윤리에 입각한 조화를 통해 통합을 도모하되, 확실성과 강제적 일치 지양하는 태도를 뜻한다. 이러한 점에서 화이부동(和而不同)은 구성원 간의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사회 전체의 조화를 추구하는 유가적 공동체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원리는 특히 통제와 위계 중심의 일원적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군사문화 도시에서 그 윤리적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다. 강압적이고 획일적인 군사문화의 특성을 완화하고, 구성원들이 차이를 존중받는 가운데 상호 신뢰와 협력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윤리적 기반을 제공한다.

나아가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원리는 도시 재생 과정에서 군사문화를 새롭게 해석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공존할 수 있는 포용적 도시 공간을 설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군사문화 도시의 강력한 통제 구조와 위계질서에 기반한 문화적 유산을 폐기하는 대신, 그 안에 내재된 긍정적 요소는 유지하면서도 부정적 속성을 윤리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화이부동(和而不同)은 도시 정체성을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철학적 토대를 제공한다. 유가 철학의 이 원리는 도시 재생의 과정에서 단순한 물리적 변화가 아닌, 공동체 내부의 윤리적·문화적 전환을 이끌어내는 지침으로 작용하며, 군사문화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존중하면서도 그 속에 새로운 공동체 가치를

정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3. 평화를 위한 개인과 공동체의 역할

유가 철학에서 조화와 화합의 윤리를 현실사회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과 공동체 각각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유가 윤리는 단순한 이론적 체계가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 스며드는 실천적 지침이며, 인간과 사회, 국가가 윤리적 질서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철학이다. 특히 군사문화 도시에서 평화적 도시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가 철학의 윤리관이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고재욱은 유가 윤리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¹⁰ 첫째, 유가 윤리는 인간의 본성에 윤리의 근거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공자의 인(仁)과 맹자의 성선(性善)은 인간이 본래부터 선을 지향하는 존재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며, 이는 각 개인이 자율적으로 도덕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윤리란 외부로부터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발현되어야 하며, 이러한 인식은 타율적인 명령과 규율을 중심으로 한 군사문화와는 본질적으로 대조된다. 유가 윤리는 억압이 아닌 자각에 기반을 두며, 이는 도시 구성원들이 자기 내면의 성찰을 통해 윤리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둘째, 유가 윤리는 인간 사회를 포함한 우주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파악한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인간의 도덕적 실천은 곧 천지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행위로 간주된다. 사회는 개별적 이해관계의 충돌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해 형

9 『論語』「子路」章23, “君子, 和而不同, 小人, 同而不和”.

10 고재욱, 「유가윤리의 특성과五常의 현대적 의의」, 『태동고전연구』 35,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5, 153~155쪽.

성되는 윤리적 구조이다. 이러한 유기체적 세계관은 도시 역시 단순한 행정 단위나 경제 단위가 아닌, 윤리적 생태계로 보게 만든다. 군사문화 도시의 경우, 위계와 통제가 중심이 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각 구성원이 유기적으로 상호 연관되고, 자신의 역할을 자각함으로써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전환될 수 있다. 유가 철학은 도시를 도덕 공동체로 바라보는 사유 틀을 제공한다.

셋째, 유가는 개인의 수양을 도덕 질서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수신(修身)은 단순히 개인적 도덕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윤리와 사회 윤리로 확장되는 실천적 과정이다. 『대학』(大學)의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¹¹라는 구조는 개인의 내면적 성찰이 어떻게 외부 세계의 윤리적 질서를 형성하는지 보여주는 도식이다. 도시 전환의 핵심도 결국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관 변화에서 출발한다. 예를 들어, 군사문화 속에서 익숙해진 강제적 복종, 일률적 사고, 폐쇄적 태도에서 벗어나 타인과 사회에 대해 열린 태도와 책임감을 갖게 되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는 단순한 인식의 전환을 넘어, 도시 문화와 공동체 관계의 질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넷째, 유가는 내성외왕(內聖外王)의 인간상을 지향한다. 이는 개인의 도덕적 인격 완성(內聖)과 사회적 실천(外王)을 통합하는 이상적 인간 모델로, 자기 수양을 바탕으로 사회와 공동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존재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간상을 단지 지배자나 지도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각자 위치에 맞게 역할을 다하는 모든 시민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유가 윤리는 각 개인이 자기 삶에서 도덕적 기준을 세우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공동체 전체의 도덕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철학적 확신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공동체 변화의 출발점이 ‘제

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유가 철학의 중요한 통찰이다.

이러한 관점은 도시 문화의 전환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된다. 군사문화 도시는 통제와 복종, 규율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간이었지만, 유가 철학은 이러한 일방적 구조 대신 각 개인의 내면적 윤리 실천을 통해 도시 전체의 질서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도시 전환은 결국 하향식 정책이 아니라, 구성원의 자발성과 도덕적 각성에 기초한 상향식 변화로부터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동체의 역할 또한 유가 윤리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공동체는 각 개인의 윤리 실천을 지지하고 이를 확장하는 장으로 기능해야 하며, 연대와 협력을 통해 조화로운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유가에서 말하는 공동체는 단순한 이해관계의 조합이 아니라, 덕성과 책임의 공유를 전제로 하는 도덕적 연대체이다. 특히 도시 공동체는 주민 간의 상호 신뢰와 존중이 기반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문화가 형성될 때만이 군사적 통제에서 벗어난 평화로운 도시가 가능하다.

또한 개인 간의 관계 속에서 충(忠)과 신(信)의 덕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충은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한 성실성과 헌신을, 신은 타인과의 약속과 신뢰를 뜻한다.¹² 이 두 가지는 가족 내 관계를 넘어, 사회적 연대와 협력의 핵심 기반이 된다. 특히 군사문화 도시처럼 위계가 강조되고, 수직적 권위에 의존하던 사회에서는 이러한 수평적 신뢰 기반 관계로의 전환이 공동체 재건의 핵심 과제가 된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다. 유가는 교육을 도덕 실천의 기초로 삼으며, 도덕적 자각과 사회적 책임을 교육을 통해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도시 전환을 위한 실천 전략으로 시민 윤리 교육, 문화예술 프로그램, 공동체 회복 워크숍 등 다양한 실

11 『大學』經1章, “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 先治其國, 欲治其國者, 先齊其家, 欲齊其家者, 先修其身, 欲修其身者, 先正其心, 欲正其心者, 先誠其意, 欲誠其意者, 先致其知, 致知在格物, 物格而后知至, 知至而后意誠, 意誠而后心正, 心正而后身修, 身修而后家齊, 家齊而后國治, 國治而后天下平”.

12 오석원, 「儒敎의 大同社會와 平和精神」, 『유교사상문화연구』 11, 한국유교학회, 1999, 68쪽.

천적 수단이 고려되어야 한다. 유가 철학에서 강조하는 인(仁), 예(禮), 의(義), 지(智), 신(信)과 같은 오상(五常)은 현대 도시 구성원들의 윤리적 역량을 기르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가 철학에서 제시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역할은 군사문화 도시의 평화적 전환을 위한 윤리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상적 자산이다. 각 개인이 자기 수양을 통해 내면적 성장을 이루고, 공동체가 이를 지지하며 연대와 협력을 통해 윤리적 질서를 형성할 때, 도시 정체성은 비로소 통제와 위계의 구조를 넘어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유가는 이러한 변화의 길목에서 실천 철학으로서의 유효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으며, 현대 도시 재생의 윤리적 원리로 충분한 함의를 제공한다.

4. 유가 윤리의 적용: 도시 정체성의 평화적 전환

군사문화 도시에 유가 철학의 윤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물리적 재생뿐만 아니라, 윤리적·문화적 재생 또한 필수적이다. 이는 유가 철학에서 강조하는 화합과 조화의 가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도시 정체성의 평화적 전환은 군사적 질서의 강압적 요소를 유가 철학적 윤리로 완화하고, 각 구성원이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만, 군사문화는 질서 유지와 공동체 유대라는 긍정적인 기능 또한 수행해왔다. 유가 철학의 윤리는 이를 완전히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강압성 대신 윤리성과 참여를 통해 조화롭게 확장하는 방법이다.

첫째, 군사문화 도시에서 유가 철학적 윤리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도시 재생 과정에서 군사적 유산의 긍정적 측면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군사적 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잔재가 아니라, 도시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

요한 요소로 재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군사 기지나 군인을 위한 시설은 단순히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역사와 기억을 담고 있는 문화적 장소로 재할용될 수 있다. 이러한 장소들은 군사적 의미를 지닌 채 재구성되어, 과거의 역사를 존중하는 동시에 새로운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재해석을 통해 군사문화의 장소성은 유지되면서도 그 안에 새로운 의미와 기능이 부여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유가 철학에서 말하는 대동사회의 이념은 앞서 언급했듯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각 구성원이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공동체의 안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시 공동체의 평화적 전환을 위해서는 이러한 이념에 기반하여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의 조성이 필수적이다. 도시는 물리적 기반을 넘어,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시 재생의 과정에서 공공 공간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도시 공동체의 유대감과 상호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 이는 유가 철학에서 강조하는 친친(親親)¹³의 개념을 확장하여, 가족 간의 친밀함을 공동체로 확장시키는 윤리적 기초가 될 수 있다.

셋째, 도시 공동체의 윤리적 재생을 위해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통한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유가적 윤리 교육은 도시 주민들에게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일깨우고, 서로 간의 존중과 협력을 통해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유가 철학에서 강조하는 인(仁)과 예(禮)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시민 교육 프로그램은 도시 주민들의 윤리적 성장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은 도시 주민들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배양하게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13 『孟子』「盡心上」章45, “孟子曰, 君子之於物也, 愛之而弗仁, 於民也, 仁之而弗親, 親親而仁民, 仁民而愛物”.

로 공동체의 화합과 조화로운 공존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적 접근은 군사문화 도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 유가적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군사적 행사나 기념일을 유가적 가치를 반영한 평화 축제로 전환하는 시도 또한 중요한 적용 방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군사적 승리를 기념하는 행사 대신 공동체의 조화와 평화를 기념하는 축제로 바꾸는 것이다. 이는 군사적 역사와 유가적 조화의 가치를 동시에 존중하면서, 주민들 사이에 협력과 연대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전환은 도시의 정체성을 군사적 통제와 위계에서 벗어나 평화와 화합의 방향으로 재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유가 철학에서 제시하는 평화적 공존의 가치를 구현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다섯째, 유가 철학에서 강조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원리를 도시 공동체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은 앞서 언급했듯이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군사문화 도시의 평화적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윤리적 기초가 된다. 각 구성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조화롭게 연결함으로써, 공동체 내의 갈등을 줄이고 상호 존중과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이는 군사적 통제와 일원적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치와 의견이 공존할 수 있는 평화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군사문화 도시의 평화적 전환은 유가 철학의 화합과 조화의 원리를 적용하여, 통제와 위계질서의 강압적 요소를 완화하고, 공동체 내부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도시 정체성을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유가 철학의 이러한 원리를 통해 도시 재생의 윤리적 지침을 마련하고, 군사적 장소성의 긍정적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공동체적 가치를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 군사문화 도시의 평화적 전환을 위해 유가 철학의 윤리적 가치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군사적 질서와 유가적 조화 사이의 접점은 단순히 두 개념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군사문화 도시의 정체성을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특히 도시 재생 담론에 유가 윤리를 접목함으로써, 도시 정체성의 윤리적·문화적 전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유가 윤리는 군사문화의 강압성과 통제를 보완하면서 공동체 윤리를 회복하고, 정의에 기반한 조화로운 질서를 구현할 수 있는 철학적 자산이 될 수 있다.

유가 철학의 평화관은 군사문화 도시의 강압적이고 획일적인 도시의 특성을 극복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존중받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윤리적 기초를 제공한다. 군사문화 도시에서 유가적 윤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유산의 재해석, 대동사회의 이념에 기반한 공공 공간의 조성, 윤리 교육을 통한 공동체 의식의 재생, 군사적 행사에서 평화 축제로의 전환, 그리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원리 적용 등을 통해 도시 정체성의 평화적 전환을 도모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유가 철학은 도시 공동체가 단순한 물리적 재생을 넘어, 윤리적·문화적 재생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이는 군사적 통제와 위계질서의 강압적 요소를 완화하고, 공동체 내부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전환은 군사문화의 부정적 유산을 극복하고, 공동체 구성원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군사문화 도시의 평화적 전환은 유가 철학의 윤리적 원리를 현대 도시의 재생 과정에 실질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는 궁극적으로 도시 정체성의 재구성 과 공동체적 가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며,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論語』, 『大學』, 『孟子』, 『禮記』

2. 단행본 및 논문

- 고재욱, 「유가윤리의 특성과五常의 현대적 의의」, 『태동고전연구』 35,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2015.
- 김성실, 「도시인문학의 토대로서 맹자의 공동체사상 연구: 인문학적 도시를 향한 맹자의 기획」, 『도시인문학연구』 7(1), 서울시립대인문학연구소, 2015.
- 박미라, 「맹자 전쟁론에서 군주의 도덕성이 가지는 효용」, 『윤리교육연구』 64, 한국윤리교육학회, 2022.
- _____, 「전쟁 딜레마로 살피면 갈등 해결 노력으로서의 철학」, 『군사과학논집』 74, 공군사관학교, 2023.
- 박창희, 「중국의 유교적 전략문화: 공자-맹자 사상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63, 한국민족연구원, 2015.
- 서세영·이혜영, 「유가 철학에서 전쟁의 의미와 도덕적 지향: 순자(荀子)의 주벌론(誅伐論)을 중심으로」, 『제43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한중인문학회, 2018.
- 안외순, 「유교사상에 나타난 화해 개념과 전통」, 『동방학』 43,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20.
- _____, 「전쟁과 평화에 대한 맹자의 인식」, 『동양고전연구』 46, 동양고전학회, 2012.
- 안유경, 「유학의 평화사상: 공자, 맹자, 주자의 인(仁) 개념을 중심으로」, 『인간과 평화』 2(1), 평화나눔연구소, 2021.
- 오석원, 「儒敎의 大同社會와 平和精神」, 『유교사상문화연구』 11, 한국유교학회, 1999.
- 유춘동 외, 『원주의 군사문화 연구』, 강원연구원, 2018.
- 윤대식, 「맹자의 전쟁과 반전쟁: 의전론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3(1), 한국국제정치학회, 2003.
- 윤지원·유성선, 「선진유가 전쟁관에 대한 소고: 공자와 맹자의 전쟁관을 중심으로」, 『제43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한중인문학회, 2018.
- 이상호, 「유교 평화론에 관한 연구」, 『윤리교육연구』 58, 한국윤리교육학회, 2020.
- 전병술, 「평화로 가는 길: 하국 정제두의 실심실학이 가야 할 길」, 『양명학』 48, 한국양명학회, 2017.
- 정두호 외, 「원주의 군사문화 연구: 원주의 장소성, 문화적 가치를 중심으로」, 『철학·사상·문화』 35,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21.
- 조남욱, 「孔孟의 國際平和理論」, 『유교사상연구』 45, 한국유교학회, 2011.
- 조은영, 「맹자(孟子)의 전쟁 개념 고찰」, 『동양철학연구』 114, 동양철학연구회, 2023.
- _____, 「유가(儒家) 전쟁관(戰爭觀)에 관한 연구동향과 과제」, 『유교사상문화연구』 84,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2021.
- _____, 「전쟁을 통해 본 적대와 환대: 맹자(孟子)의 의전(義戰)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116, 동양철학연구회, 2023.

Abstract**Reimagining Military Cities**

Confucian Ethics and the Shift from Control to Communal Harmony

Jung, Du-Ho |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how Confucian ethical values can be applied to the peaceful transformation of military culture cities. Rather than viewing military order and Confucian harmony as inherently oppositional, it highlights their potential for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By reinterpreting military heritage through a Confucian lens, the study seeks to reconstruct the identity of military culture cities in a way that is peaceful, inclusive, and sustainable. Confucian ideals of peace offer a valuable ethical foundation for softening the coercive and hierarchical dimensions of military structures, enabling a transition toward more participatory and respectful civic cultures.

Key strategies include the reinterpretation of military legacies, the creation of public spaces inspired by the ideal of the Great Unity (大同社會), the revitalization of communal consciousness through ethical education, the transformation of military ceremonies into peace-oriented festivals, and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harmony without uniformity” (和而不同). These approaches facilitate not only physical regeneration but also ethical and cultural renewal, ultimately contributing to a reimagining of urban identity and the strengthening of shared communal values.

Keywords Transformation of Military Culture Cities, Confucian Philosophy, Peaceful Coexistence, Great Unity (大同社會), Harmony without Uniformity (和而不同)
